

#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 Student Personal Characteristics, Parent Attachment and Adjustment in College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박 범 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정 영 숙\*\*

Dept. of Social Welfare, Chung-cheong Univ.

Adjunct Professor : Park, Bum-Hyeok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Professor Emeritus : Chong, Young-Sook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two main research questions; whether or not there is a difference in student adjustment in colleg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s characteristics,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self-esteem, self-identity, interaction anxiousness, and parent attachment on the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udents' adjustments in colle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cramming for repeating a college entrance exam, living with their parents, college major, family income, and religion. Second, the self-esteem, self-identity, interaction anxiousness, and parent attachment of college students impacted the related adjustment. Self-identit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predicting the adjustment in College. Therefor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programs of self-identity Improvement are needed for the adjustment in college life.

---

▲주요어(Key Words) : 대학생활적응(adjustment in college),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정체감(self-identity), 대인불안(interaction anxiousness), 부모와의 애착(parent attachment)

### I. 서 론

개인은 인생주기에 따라 발달과업뿐 아니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경험에 대처해 나가게 된다. 새로운 경험은 개인의 적응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은 인간의 삶에서 계속되는 과제이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전환되며 새로운 적응이 시작되는 대학생활 시기는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시기로,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이 주어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생존하기 위해 대학의 물리적·사회적 요구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이다(한덕웅 등, 1991). 이러한 대학생활적응 시기는 이전까지 청년들이 접하던 타율적인 생활방식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청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라 볼 수 있다(Erikson, 1968).

---

\* 주 저 자 : 박범혁 (E-mail : ecjpreschool@hanmail.net)

\*\* 교신저자 : 정영숙 (E-mail : yschong@chungbuk.ac.kr)

따라서 대학생들의 주요 생활터전이 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문적·사회적·심리적 요구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때 대학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정현욱, 1996). 그러나 이 시기에는 급격한 심리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과거의 적응기제들이 충분하지 못해 이전 단계에 형성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그리고 대인불안과 부모와의 애착이 새로운 갈등에 부딪치게 되면서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제적생수는 1998년에 42,615명으로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대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대학생 제적의 원인이 전체 대학생 입학인원의 증가와 경제상황의 악화라고 추정할지라도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해 발생하는 부적응의 변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학생활적응은 성숙한 성인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관문으로 대학생활 기간동안 다양한 외부자극을 수용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기존의 대학생활적응 연구의 대부분은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실태 조사에 머물렀으며,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을 살펴보는데 있어 성격변인, 개인의 통제력,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학업적응, 대학생활 등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김은정, 1992; 정은희, 1992; 최송미, 1999; Morrison & Morrison, 1978).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대학생활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성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신은숙 등, 1995; 김영화·김병찬, 2003), 재수경험과 전공, 가정의 월평균 소득, 종교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의 차이(김재은 등, 1996; 박현진, 1999; 최송미, 1999), 부모와의 동거와 비동거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양현정, 2002), 지난학기 성적과 대학생활적응의 차이(Bloom, 1966; 최연실 등, 2004) 등의 연구가 있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지적하고 있다(최혜림, 1999; 김소영, 1996).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을 지향하는 태도로(Rosenberg, 1985), 최혜림(1999)은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대학생들의 학업적응과도 관계가 있는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대학생들은 시험에서 자신의 점수를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고, 점수에 대한 기대도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보다 낮았다(Morrison & Morrison, 1978)고 보고하였다. 김소영(1996)은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측변인으로 기대된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자아정체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Hoffman(1984)과 Moore(1987)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자아정체감은 자아존중감과 함께 청년기 발달과업의 하나로 고등학교의 통제된 학교환경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환경적 조건으로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를 대학입학 이후로 연기하거나 정체감 유실상태에 이르게 된다(김동배·권중돈, 1998). 이에 대학생이 겪는 부적응과 대학환경에 대한 혼란과 갈등은 심리적 적응이나 정서적 적응을 비롯하여 성격적 적응, 이성적 적응, 전공 및 진로에 관한 적응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윤여궁(2001)은 대학 신입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박아청(1999)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신뢰감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하위척도와 신뢰감과는 정적관계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이 높은 사람 즉 자아를 확립한 사람일수록 친밀감이 높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갖으며, 자신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 다양한 사회의 기초적응을 위한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는 중요한 과제인데, 이 시기 대인불안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인불안은 청년기에 자신의 정체감과 대인관계, 학업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김혁근, 1992). 이러한 대인불안은 임상에서 또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서(Zimbardo, 1977), 불안의 다른 유형보다 좌절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Curran, 1977). 즉 불안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사회적 모임을 처리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사회적 과제수행에 있어 많은 결손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kowitz et al., 1975). 조용래와 원호택(1997)은 대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24.7%의 대학생들이 사교적인 모임에서 불안을 느끼고, 면접시험 상황에서는 54.9%의 대학생들이 불안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 만남의 경우에도 8.5%의 대학생들이 중간 이상의 불안을 경험한다고 한다. 또한 대인불안의 평생 유발율이 서울시 53%, 지방이 65%라는 역학조사결과가 있다(이정균 등, 1986).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인으로 애착을 들 수 있다(Lapsley & Edgerton, 2002). 특히 서구와는 상대적으로 개별성보다 관계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김동직, 1999) 애착은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족특성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애착이란 특정한 즉, 주 양육자와 접촉하고 근접하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이다(Ainsworth, 1989; Bowlby, 1988). 대부분의 성인 애착연구들은 애착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아들의 행동특성이 성인기에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과 유아와 성인의 애착유형 분포비율이 유사하다는 발견에 근거하고 있다(김동직·한성열, 1997). 또한 아동기에 수립된 애착체계는 성인의 사회적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Hazan, & Shaver, 1990). 대학생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이정자(2001)의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Lapsley et al.(1990)는 부모와의 애착이 개인·사회 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Kenny와 Donaldson(1991)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여학생의 경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능력과 심리적 복지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학업동기 및 교수의 학업지도에 대한 적응도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학생보다 뒤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김재은 등, 1997; 소영원, 1997)하였고, 반면 최은실(2001)의 연구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은 개별적 또는 부분적으로 살펴 본 것에 그치고 있어 본 연구는 개인의 성장발달과 함께 확립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대인불안과 부모와의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이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활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성에 따라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 즉,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과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관련영역에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며, 남녀 대학생이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 대학생활 부적응의 예방과 대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특성,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와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대학 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에 따라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과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으로는 청주와 대전에 소재한 국공립,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C대학교 300명, S대학교 260명, M대학교 540명의 1, 2, 3, 4학년 총 1,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학과목 시간을 허락 받아 조사하였다. 교양학과목을 이용하여 조사한 이유는 다양한 전공학과목의 학생들을 표집하기 위함이며, 연구자와 박사과정의 보조 연구자 1명이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구하였다. 조사 시간은 평균 25~30분정도 소요 되었으며 질문지는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조사시기는 2006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1차 예비조사를 150명에게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2006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1,1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나, 이 중에서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 32부를 제외한 총 1,068부가 통계처리에 이용되었다.

### 2. 측정도구

#### 1)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는 Baker와 Stryk(1984)가 제작한 것으로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에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자기보고를 통해 알아보는 검사로서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문항들은 대학의 교육적, 학업적 요구에 관한 학업적응(24문항), 대인관계와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응(20문항), 심리적 혹은 신체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정서적응(16문항), 그리고 대학에 대한 유대 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정도를 알아보는 대학만족도(16문항)로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다른 하위척도와는 다르게 대학만족도 척도는 사회적응 척도와 8개 문항, 그리고 학업적응 척도와 1개 문항이 각각 중복된다. '나는 대학내의 환경에 잘 맞는 것

같다, '나는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등 각 문항들은 9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 '매우 그렇다'에는 9점이 부여된다. 적응점수는 문항에 따라 그대로 혹은 역산하도록 하는데 4개 하위척도의 점수를 합하여 총 대학생활적응 점수를 산출해 낼 수 있다. 각각의 하위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학업적응이 .83, 사회적응이 .83, 정서적응 .81, 대학만족도가 .79로 나타났다. 전체계수는 .93이었다.

## 2) 자아존중감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배제현(198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기존중의 정도와 자아승인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문항으로써 긍정적 문항을 긍정하거나 부정적 문항을 부정하면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게 된다. '나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좋지 않다고 생각 할 때가 있다' 등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긍정문항인 경우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를, 부정적인 경우 매우 그렇다(1점), 그렇다(2점), 그렇지 않다(3점), 매우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척도 Cronbach's  $\alpha$ 를 살펴보면, 긍정적 문항이 .81, 부정적 문항이 .66이며 전체계수는 .84로 나타났다.

## 3) 자아정체감

현재 각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기존재의 사명과 이해를 중심으로 자아정체감을 규명하고자 김형태(1989)의 구성요인형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정체감 척도는 Dignan(1965)이 Erikson의 이론을 연구하여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인을 자기감각, 독특성, 자기수용, 대인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및 대인관계 등 7개영역으로 구분하여 150개 문항으로 작성한 것을 국내 서봉연(1975)이 번안·제작하여 Dignan검사에 없는 자기주장이라는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8개영역 64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김형태(1989)가 하위구성 영역을 재조정하여 작성된 것이다. 6개의 하위요인에 10문항씩이고, 허구척도 10문항을 포함하여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계속한다', '나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지 않는다' 등 7개의 하위요인에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다. 부정문으로 된 질문에 대한 반응은 거꾸로 환산한 후 채점하였다. 본 연구의 자아정체감 척도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 4) 대인불안

대인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Leary(1983)의 대인불안척도를 김남재(1995)가 번안한 한국판 IAS(Interaction Anxiety Scale)를 사용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에서 조차 자주 불안을 느낀다', '나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대개 불편함을 느낀다' 등 각 문항에 제시된 문장이 질문 참여자의 특성을 얼마나 잘 기술하는가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이며 15문항 중 4개의 문항(3, 6, 10, 15문항)은 역 코딩하여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 수준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인불안의 Cronbach's  $\alpha$ 는 .82였다.

## 5) 부모와의 애착

부모에 대한 애착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판(IPPA-R)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동료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차원의 애착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IPPA 개정판(IPPA-R) 전체 75문항 중, 정정숙(1994)이 번안한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28문항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상호 신뢰의 정도, 의사소통의 질, 분노와 소외의 정도를 측정하는 애착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차원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반응의 안정성을 측정하며, 의사소통차원은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며, 소외차원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를 향한 분노를 측정한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 해 주신다',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아버지(어머니)로서 훌륭한 분이라고 느낀다' 등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소외차원을 구성하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인 문항들은 반대로 채점된다. 신뢰차원과 의사소통차원 문항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소외 차원 문항의 점수를 빼 것이 개인의 애착점수가 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애착이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Cronbach's  $\alpha$ 는 .83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배경을 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개인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부모와의 애착, 대학생활적응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와 사후 검증으로 Tukey검증을 실시하였다. 하위요인에 따른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하위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인들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에 따라 남학생이 42.6%, 여학생이 57.4%였으며, 대학생의 전공으로는 인문계열15.0%, 사회계열 37.8%, 공학계열 10.4%, 이학계열 10.6%, 예능계열 13.2%, 사범계열 8.2%, 기타계열 4.9%였고, 대학생의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48.2%, 그 외 비동거의 경우 51.8%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지난학기 성적분포는 2.0미만이 1.7%, 2.0~3.0 미만이 17.2%, 3.0~4.0미만이 56.1%, 4.0이상이 25.1%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입학에 있어 재수유무는 재수를 한 경우가 14.2%, 재수를 하지 않은 경우가 85.8%로 재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높았다. 종교는 기독교 33.7%, 천주교 8.3%, 불교 22.5%, 무종교가 34.4%, 기타 1.0%였으며 가족의 경제 수준에 대한 지각은 가정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가 23.2%, 200만원~400만원 미만이 50.9%, 400만원 이상이 25.8%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차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의 하위변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학생의 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을 살펴 보면 사회적응( $t=2.04, p<.05$ )과 정서적응( $t=6.30,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응과 정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는 학업적응( $F=3.69, p<.01$ ), 사회적응( $F=2.66, p<.05$ ), 정서적응( $F=4.28, p<.001$ ), 대학만족도( $F=6.61, p<.001$ )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하위요인에서 공학, 사회, 예능계열학생들보다 기타계열학생이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응( $t=-2.00,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비동거를 하는 학생이 부모와 함께 동거를 하는 학생보다 사회적응을 잘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도(%)	변 인	구 분	빈도(%)
성	남학생	455(42.6)	지난학기 성적	2.0 미만	16(1.7)
	여학생	612(57.4)		2.0~3.0 미만	166(17.2)
	계	1067(100.0)		3.0~4.0 미만	542(56.1)
전 공	인문계열	159(15.0)		4.0 이상	242(25.1)
	사회계열	401(37.8)		계	966(100.0)
	공학계열	110(10.4)	재수유무	유	151(14.2)
	이학계열	112(10.6)		무	913(85.8)
	예능계열	140(13.2)		계	1064(100.0)
	사범계열	87(8.2)	종 교	기독교	359(33.7)
	기타	52(4.9)		천주교	89(8.3)
계	1061(100.0)	불교		240(22.5)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	512(48.2)		무종교	367(34.4)
	자취	291(27.4)		기타	11(1.0)
	하숙	51(4.8)	계	1066(100.0)	
	친척집	28(2.6)	가정의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240(23.2)
	기숙사	147(13.8)		200~400만원 미만	526(50.9)
	기타	34(3.2)		400만원 이상	267(25.8)
계	1063(100.0)	계		1033(100.0)	

&lt;표 2&gt;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변 인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	
성	남자	n	454	454	454	453
		M(SD)	5.06(.96)	5.29(1.12)	5.09(1.06)	5.49(1.27)
	여자	n	612	612	612	612
		M(SD)	5.07(.93)	5.15(1.11)	4.66(1.13)	5.49(1.40)
	t		-.14	2.04*	6.30**	.03
전공	인문계열	n	159	159	159	158
		M(SD)	5.19(.98)ab	5.31(1.04)ab	4.97(1.13)ab	5.67(1.35)bc
	사회계열	n	401	401	401	401
		M(SD)	4.96(.94)ab	5.09(1.10)b	4.73(1.09)ab	5.35(1.36)bc
	공학계열	n	110	110	110	110
		M(SD)	4.84(.86)b	5.14(.97)ab	4.97(.92)ab	5.18(1.12)c
	이학계열	n	112	112	112	112
		M(SD)	5.21(1.10)ab	5.31(1.28)ab	4.99(1.25)ab	5.68(1.40)bc
	예능계열	n	139	139	139	139
		M(SD)	5.13(.69)ab	5.19(1.10)ab	4.57(1.10)b	5.33(1.24)bc
사범계열	n	87	87	87	87	
	M(SD)	5.19(1.11)ab	5.41(1.20)ab	5.00(1.14)ab	5.78(1.42)ab	
기타	n	52	52	52	52	
	M(SD)	5.29(.80)a	5.58(1.17)a	5.19(1.24)a	6.25(1.25)a	
	F(df=5)		3.69**	2.66*	4.28***	6.61***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거	n	512	512	512	512
		M(SD)	5.06(.90)	5.13(1.07)	4.84(1.09)	5.47(1.34)
	비동거	n	291	291	291	291
		M(SD)	5.06(.96)	5.29(1.18)	4.88(1.06)	5.50(1.29)
	t		-.03	-2.00*	-.45	-.30
지난학기 성적	3.0 미만	n	181	181	181	181
		M(SD)	4.59(.96)c	5.11(1.19)b	4.83(1.14)	5.33(1.29)b
	3.0~4.0 미만	n	542	542	542	542
		M(SD)	5.04(.87)b	8.19(1.08)ab	4.83(1.11)	5.43(1.29)b
4.0 이상	n	242	242	242	241	
	M(SD)	5.49(.96)a	5.38(1.14)a	4.87(1.14)	5.79(1.42)a	
	F(df=2)		51.40***	3.44*	.11	7.81***
재수유무	유	n	151	151	151	151
		M(SD)	5.43(1.01)	5.33(1.20)	5.03(1.16)	5.82(1.43)
	무	n	912	912	912	912
		M(SD)	5.00(.92)	5.19(1.10)	4.82(1.11)	5.44(1.32)
	t		4.86***	1.36	2.16*	3.20**
종교	불교	n	240	240	240	240
		M(SD)	5.06(1.00)ab	5.28(1.05)	4.89(1.16)	5.47(1.37)ab
	기독교·천주교	n	447	447	447	446
		M(SD)	5.14(.87)a	5.26(1.12)	4.86(1.10)	5.63(1.32)a
무교	n	378	378	378	378	
	M(SD)	4.97(.98)b	5.12(1.14)	4.80(1.12)	5.33(1.34)b	
	F(df=2)		3.24*	2.09	.48	5.00**
가정의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n	239	239	239	239
		M(SD)	5.00(.93)	5.21(1.14)	4.79(1.12)b	5.57(1.34)
	200~400만원 미만	n	526	526	526	526
		M(SD)	5.06(.92)	5.21(1.09)	4.77(1.11)b	5.47(1.33)
400만원 이상	n	267	267	267	266	
	M(SD)	5.15(1.01)	5.22(1.17)	5.05(1.11)a	5.41(1.40)	
	F(df=2)		1.62	.03	6.27**	.94

\*p&lt;.05, \*\*p&lt;.01, \*\*\*p&lt;.00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지난학기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적응( $F=51.40, p<.001$ ), 사회적응( $F=3.44, p<.05$ ), 대학만족도( $F=7.81,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점이 4.0 이상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수유무에 따라서는 대학생활적응 하위변인 중 학업적응( $t=4.86, p<.001$ ), 정서적응( $t=2.16, p<.05$ ), 대학만족도( $t=3.20, p<.01$ )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업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에서 재수를 경험한 학생이 재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종교에 따라서는 학업적응( $F=3.24, p<.05$ )과 대학만족도( $F=5.00,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독교, 천주교를 믿는 학생이 무종교인 학생보다 학업적응이 높았으며, 대학만족도도 높았다. 불교를 믿는 학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월 평균소득에 따라 정서적응( $F=6.27,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정의 학생이 400만원 미만보다

정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3. 성에 따른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성에 따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관관계와 각 변인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남학생이 .10에서 .66로, 여학생이 .09에서 .67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 즉,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변인들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이 있었다. 부모와의 애착에 있어 남학생의 경우 모와의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는 상관이 없었고, 부와의 애착과 정서적응 및 대학만족도간에도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착과 정서적응에만 상관이 없었다.

<표 3>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부애착	모애착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66***								
대인불안	-.48***	-.57***							
부애착	.20***	.19***	-.10*						
모애착	.13**	.14**	.00	.39***					
학업적응	.51***	.59***	-.31***	.19***	.05				
사회적응	.47***	.54***	-.41***	.20***	.06	.53***			
정서적응	.53***	.52***	-.30***	.08	-.02	.53***	.47***		
대학만족도	.39***	.43***	-.19***	.09	.02	.60***	.63***	.46***	
평균	2.86	2.76	2.61	5.49	5.90	5.06	5.29	5.90	5.49
(SD)	(.46)	(.28)	(.55)	(.83)	(.64)	(.96)	(1.12)	(1.06)	(1.27)

\* $p<.05$ , \*\* $p<.01$ , \*\*\* $p<.001$

<표 4>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부애착	모애착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67***								
대인불안	-.47***	-.55***							
부애착	.12**	.12**	-.09*						
모애착	.13**	.15***	-.07	.26***					
학업적응	.53***	.60***	-.38***	.12**	.17***				
사회적응	.49***	.55***	-.44***	.17***	.14**	.55***			
정서적응	.43***	.42***	-.34***	.06	.00	.54***	.46***		
대학만족도	.41***	.44***	-.20***	.09*	.13**	.62***	.59***	.44***	
평균	2.80	2.73	2.68	5.36	5.88	5.07	5.15	4.66	5.49
(SD)	(.42)	(.27)	(.53)	(.87)	(.70)	(.93)	(1.11)	(1.13)	(1.40)

\* $p<.05$ , \*\* $p<.01$ , \*\*\* $p<.001$

1)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및 부모와의 애착이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간 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각 변인간의 분산팽창계수 VIF 값을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VIF는 1.203에서 2.139이며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값이 3보다 작은 값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다.

첫째, 학업적응에 있어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beta=.214$ ,  $p<.001$ )과 자아정체감( $\beta=.489$ ,  $p<.001$ ), 부모와의 애착( $\beta=.089$ ,  $p<.05$ ), 모와의 애착( $\beta=.081$ ,  $p<.05$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은 남학생의 학업적응에 대해 38.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 때 학업적응이 높았고, 모와의 애착이 높을 때 학업적응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학업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으며, 대인불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응에 있어서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beta=.159$ ,  $p<.01$ ), 자아정체감( $\beta=.346$ ,  $p<.001$ ), 대인불안( $\beta=-.125$ ,  $p<.05$ ),

부와의 애착( $\beta=.110$ ,  $p<.05$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은 남학생의 사회적응에 대해 32.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 때 사회적응이 높았고, 대인불안이 높을 경우 사회적응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사회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으며, 모와의 애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정서적응에 있어서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beta=.333$ ,  $p<.001$ ), 자아정체감( $\beta=.377$ ,  $p<.001$ ), 모와의 애착( $\beta=-.119$ ,  $p<.01$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은 남학생의 정서적응에 대해 35.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이 높을 때 정서적응이 높았고, 모와의 애착이 높을 때 정서적응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정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으며, 대인불안과 부모와의 애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대학만족도에서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beta=.202$ ,  $p<.001$ ), 자아정체감( $\beta=.375$ ,  $p<.001$ ), 대인불안( $\beta=.124$ ,  $p<.05$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은 남학생의 대학만족도에 대해 20.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대인불안이 높을 때 대학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대학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표 5>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및 부모와의 애착이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beta$	t	$R^2$	adj- $R^2$	F (df=4)
학업적응	자아존중감	.214***	4.22***	.389	.382	56.28***
	자아정체감	.489***	8.99***			
	대인 불안	.075	1.63			
	부와의 애착	.089*	2.17*			
	모와의 애착	-.081*	-2.00*			
사회적응	자아존중감	.159**	3.00**	.331	.324	43.78***
	자아정체감	.346***	6.09***			
	대인 불안	-.125*	-2.59*			
	부와의 애착	.110*	2.56*			
	모와의 애착	-.049	-1.14			
정서적응	자아존중감	.333***	6.40***	.358	.351	49.34***
	자아정체감	.377***	6.77***			
	대인 불안	.080	1.69			
	부와의 애착	.001	.02			
	모와의 애착	-.119**	-2.85**			
대학만족도	자아존중감	.202***	3.51***	.216	.207	24.33***
	자아정체감	.375***	6.08***			
	대인 불안	.124*	2.37*			
	부와의 애착	.010	.22			
	모와의 애착	-.068	-1.47			

\* $p<.05$ , \*\* $p<.01$ , \*\*\* $p<.001$



<표 6>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및 부모와의 애착이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β	t	R <sup>2</sup>	adj-R <sup>2</sup>	F (df=4)
학업적응	자아존중감	.227***	5.19***	.402	.397	79.58***
	자아정체감	.415***	8.92***			
	대인 불안	-.037	-.96			
	부와의 애착	.025	.77			
	모와의 애착	.071*	2.13*			
사회적응	자아존중감	.176***	3.89***	.363	.358	67.58***
	자아정체감	.332***	6.93***			
	대인 불안	-.168***	-4.20***			
	부와의 애착	.082*	2.39*			
	모와의 애착	.028	.81			
정서적응	자아존중감	.252***	5.08***	.230	.224	35.40***
	자아정체감	.199***	3.78***			
	대인 불안	-.110*	-2.51*			
	부와의 애착	.018	.47			
	모와의 애착	-.078*	-2.07*			
대학만족도	자아존중감	.218***	4.39***	.226	.219	34.52***
	자아정체감	.330***	6.25***			
	대인 불안	.085	1.94			
	부와의 애착	.019	.51			
	모와의 애착	.05	1.25			

\*p<.05, \*\*\*p<.001

애착과 모와의 애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및 부모와의 애착이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간 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각 변인간의 분산 팽창계수 VIF 값을 살펴 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VIF는 1.082에서 2.141이며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값이 3보다 작은 값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부모와의 애착이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6>과 같다.

첫째, 학업적응에 있어서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beta=.227, p<.001$ ), 자아정체감( $\beta=.415, p<.001$ ), 모와의 애착( $\beta=.071, p<.05$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은 여학생의 사회적응에 대해 39.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모와의 애착이 높을 때 학업적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학업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으며, 대인불안과 부와의 애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응에 있어서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beta=.176, p<$

.001), 자아정체감( $\beta=.332, p<.001$ ), 대인불안( $\beta=-.168, p<.001$ ), 부와의 애착( $\beta=.082, p<.05$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부와의 애착이 높을 때 사회적응이 높았고, 대인불안이 높을 경우 사회적응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사회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으며, 모와의 애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정서적응에 있어서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beta=.252, p<.001$ ), 자아정체감( $\beta=.199, p<.001$ ), 대인불안( $\beta=-.110, p<.05$ ), 모와의 애착( $\beta=-.078, p<.05$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은 여학생의 정서적응에 대해 22.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이 높을 때 정서적응이 높았고, 대인불안과 모와의 애착이 높을 때 정서적응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정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부와의 애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대학만족도에 있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beta=.218, p<.001$ ), 자아정체감( $\beta=.330, p<.001$ )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은 여학생의 대학만족도에 대해 21.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여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이 높을 때. 대학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대학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으며 대인불안과 부모와의 애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첫째,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응은 재수유무, 전공, 지난학기성적, 종교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응은 성, 부모와의 동거여부, 전공, 지난학기성적에서, 정서적응은 성, 재수유무, 전공, 가정의 월평균소득에서, 대학만족도는 재수유무, 전공, 지난학기성적, 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에 따라 사회적응, 정서적응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응을 제외한 모든 적응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김영화와 김병찬(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대학만족도를 제외한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에서 남학생의 적응도가 높게 나타난 신은숙, 김현덕과 민무숙 등(199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전공에 따라서 학업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대학만족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영역에서 전공선택은 중요한 영향력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와의 동거여부에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대학생이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보다 사회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에 비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이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 한다는 양현정(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지난학기성적이 높을 때 정서적응을 제외한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학업성취가 학생의 학교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만 여겨졌으나, 현재는 개인의 경쟁력과 관련되는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학업성취는 진로를 모색하거나 사회진출에 있어 직접적으로 개인의 능력수준을 반영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학업성취도가 개인의 성공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성격발달이나 적응은 학업성적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학기성적이 좋은 남학생이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는 최연실, 박한샘과 김희숙(2004)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또 Bloom(1966)은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이 한 개인의 성격이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 환경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응을 잘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좋지 못

한 학생들은 학습집단에서 소외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개인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재수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적응, 정서적응과 대학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박현진(1999)과 김재은, 이은순과 강순화(1996)는 한국 15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재수경험이 있는 학생이 재수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전공, 대인관계, 경제와 주거, 문화생활, 가치관과 종교, 민주화, 가족관계, 여가생활 활동도와 시간관리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더 만족하는 결과를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영향을 나타내었다. 재수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힘들었던 재수경험이 현재 대학생활적응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불만을 낮추도록 하는 등 중재작용을 일으켜 여러 측면에서 대학생활적응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교에 따라 학업적응과 대학만족도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또 가정의 월평균소득에 따라 정서적응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는데, 대학생의 적응문제가 학비조달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최송미(1999)의 연구와도 부분적 일치한다. 즉,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직접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기보다 대학생의 심리적인 측면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과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적응에 남녀 대학생이 공통으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모와의 애착이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만 부와의 애착이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부와의 애착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경험했다는 Moore(198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남자 대학생에게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부자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 또한 남녀대학생 모두 자아정체감이 학업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정체감 수준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성취상태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평균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양병한(1983)의 연구를 지지한다. 사회적응의 경우, 남녀대학생 모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과 부모와의 애착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대학생활적응에서 부모의 애착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정은희(199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

이며, 한혜준(1994)의 연구 역시 부모로부터 갈등적 독립이 발달한 학생이 사회적응은 높으나 심리적 문제의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대학생활 적응 중 사회적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성과 관계없이 심리적 특성인 자아정체감으로 사회적응에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이해할 수 있다.

정서적응에 남녀대학생이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모와의 애착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대인불안도 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불안이 낮을수록 정서적응을 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응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자아정체감이었는데 반해 여학생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에 박은민(2000)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고희자와 강혜원(2000)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며 주관적 복지감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Coopersmith(1967)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각과 판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문제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으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긍정적인 대처로 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를 밝혀 본 연구를 지지한다. 대학만족도에 남녀대학생이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이었으며, 남학생에게 대인불안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이 높다면 남녀대학생 모두 대학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남녀대학생 모두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학생의 정서적응을 제외하고 남녀대학생의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만족도에서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대학요구의 적절한 대처 및 개인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정체감이 높은 대학생은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때 더 잘 적응하고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훈련기법 등의 연구가 절실하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성에 따른 성역할 사회화 과정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이 달라지므로 대학생들이 생활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학의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요구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며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

구학적 특성은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학업적응에서는 재수유무, 전공, 성적, 종교이었고, 사회적응에서는 성, 부모와의 동거, 전공, 성적이었다. 정서적응에서는 성, 재수유무, 전공,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었으며, 대학만족도에서는 재수유무, 전공, 지난학기성적, 종교이었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과 부모와의 애착은 대학생활적응의 학업·사회·정서적응, 대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었으며, 각 영역의 적응에 공통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낸 것은 자아정체감이었고,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었다. 부모와의 애착은 남녀대학생의 적응영역에 따라 영향력이 차이가 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은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만족도에서 영향을 미쳤으며, 모와의 애착은 학업적응과 정서적응이 영향을 미쳤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은 사회적응에서만 영향을 미쳤고, 모와의 애착에서는 학업적응, 정서적응에서 영향을 주었다. 남녀대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부모와의 애착에서는 사회적응이었고 모와의 애착에서는 학업적응과 정서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청주와 대전지역 4년제 대학 1, 2, 3, 4학년으로 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우리나라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특수대학, 일반대학을 포함한 각 연령층의 대학생들을 표집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각 집단간의 비교연구로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은 개인이 성취한 자아확립의 변인이며, 대인불안과 부모와의 애착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변인으로 함께 살펴보았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이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현재의 대인불안과 부모와의 관계보다 자아에 관련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이 더 중요한 적응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통제, 독립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인애착유형 등 인간관계 변인으로 연구하면 대학생활적응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불안,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을 자기보고식 자료를 매개로 분석하였기에 대학생활적응 전체를 규정하기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발달 연구에서 활용되는 질적인 연구방법이나 인터뷰를 이용한 장기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로 밝혀진 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이 큰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됨이 요구된다.

- 접수 일 : 2007년 02월 20일
- 심사 일 : 2007년 04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5월 11일

#### 【참 고 문 헌】

- 고향자·강혜원(2000). 가치성향,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전국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장협의회 대학 생활연구**, 14, 69-95.
- 교육인적자원부(2002). **교육통계연보**. <http://www.moe.go.kr>.
- 김남재(1995). 대인불안의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 73-81.
- 김동배·권중돈(1998).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김동직(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직·한성열(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유형 분포와 대인 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1(2), 91-109.
- 김소영(1996).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화·김병찬 (2003). 공업계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관련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2(3), 21-42.
- 김은정(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 상담연구**, 8, 85-114.
- 김재은·이은순·강순화(1997). **한국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집문당.
- 김혁곤(1992). 대학생의 사회불안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덕(2000). 전문대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도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8(3), 57-79.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1999).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박은민(2000). **대학생활 적응과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진(199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체계 유형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제현(1984). **자아-아이덴티티와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에 관한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영원(199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은숙·김현덕·민무숙(1995).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 45-92.
- 양병한(1983). **과목실적 경험과 자아-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현정(2002).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여궁(2001). **대학신입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균·곽영숙·이희·김용식·한진희·최진옥·이영호(1986). **한국 정신 장애의 역학적 조사연구(I)**. 도시 및 시골 지역의 평생 유병률, **서울의대 정신의학**, 11, 121-141.
- 이정자(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숙(1994).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욱(1996).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사회심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 연구**, 25, 83-101.
- 조용래·원호택(1997). **대인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개발과 타당화에 대한 연구**. **심리학연구문제**, 4, 397-434.
- 최송미(1999). **한·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실·박한샘·김희숙(2004). **서울캠퍼스 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 생활연구 교내학술지**, 18, (0), 1-28.
- 최은실(2001). **애착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림(199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증, 가정적 자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11(2), 183-197.
- 한덕웅·전경구·이창호(1991). **한국대학의 생활환경 변화와 대학생활 적응**.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9(1), 5-169.
- 한혜준(1994). **분리개별화와 가족 응집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

- ican Psychologist, 44, 705-716.
- Arkowitz, H., Lichtenstein, E., McGovern, K., Hines & P.(1975). The Behavioral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ales. *Behavior Therapy*, 6, 3-13.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ker, R. W. & Siryk, B.(1984). Measurabil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loom, B. S.(1966). Twenty Five Years of Educational Research.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 211-222.
- Bowlby, J.(1988). *A Secure Base*. N.Y.: Basic Books.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eman. Counseling children in groups : A forum,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Curran, J. P.(1977). Skills Training as an Approach to the Treatment of Heterosexual-Social Anxiety. *Psychological Bulletin*, 84, 140-157.
- Dignan, S. M. H.(1965). Ego Identity and Materi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476-483.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es*, New York : W. W. Norton and Co.
- Hazan, C. & Shaver, P. R.(1990). Love and Work :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Kenny, M. E. & Donaldson, G. A.(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79-486.
- Lapsley, D. K. & Edgerton, J.(2002).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485-493.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1990). Adolescence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68, 561-565.
- Leary, M. R.(1983). Social Anxiousness :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66-75.
- Moore, D.(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 The Construction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98-307.
- Morrison, T. L. & Morrison, R. L.(1978). Self-Esteem, Need for Approval, and Self-Estimates of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43, 503-507.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ry,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pp. 205-246). Orlando, F.L.: Academic Press.
- Zimbardo, P. G.(1977). *Shyness : What it is and What to do about it*. N.Y.: Dove.